

다우코닝, 몰리코트 G-4500 출시

베어링에서 식품등급까지 사용 가능 ... 내마모성 · 수명 효율성 우수

세계적 실리콘 메이커인 다우코닝(Dow-Corning)이 석유기제의 윤활유보다 더 큰 부하를 감당할 수 있고 내마모성도 더욱 뛰어나며 수명이 길어진 다목적 합성 그리스 몰리코트(Molykote®) G-4500을 본격 출시한다고 9월9일 발표했다.



범용 저점도 백색 합성 그리스인 몰리코트 G-4500은 회전체 부품이나 일반 베어링, 피봇 핀, 캠, 가이드, 웨이, 드라이브 스크류, 기어, 스플라인 등 다양한 기계부품에 사용할 수 있다.

특히, 다양한 플라스틱이나 엘라스토머에도 쓸 수 있는 몰리코트 G-4500은 식품과의 우발적 접촉과 관련된 미국 식품의약청(FDA) 규정 21 CFR 178.3570 및 NSF H1 분류기준에도 부합해 식품등급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.

몰리코트 G-4500은 NLGI 1급 및 2급 등 2가지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.

한국다우코닝 허준 몰리코트 팀장은 “몰리코트 G-4500 그리스는 범용성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일반기계 윤활유에서 식품 제조에 관련된 기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어 날 것으

로 예측한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9/13>